

Clariant, 저발포 특성 유화도료 공급

Clariant가 새로운 기능이 첨가된 유화도료(Emulsion Paint)를 출시했다.

Clariant는 최근 기존 유화도료와 달리 저발포체 특성을 가진 <Genapol ED 3060>을 런칭했다고 발표했다.

<Genapol ED 3060>는 저발포체로 도료 변형에 따른 추가공정을 줄여 공정비용을 절감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.

특히, 안료와의 호환성과 소수성이 뛰어나 바이올렛이나 핑크 등 구현이 어려운 색상도 쉽게 생산할 수 있어 강점으로 꼽히고 있다.

Clariant 관계자는 “<Genapol ED 3060>는 저발포체로 습윤력이 뛰어나 기존 안료의 단점이었던 엉김을 차단해줌으로써 지탱력을 강화시켜주는 강점이 있다”며 “환경호르몬 성분을 함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APEO(Alkyl- phenoethoxylate)나 휘발성 유기화합물 VOCs(Volatile Organic Compounds)를 포함하지 않아 친환경적”이라고 설명했다.

실내외 건축용으로 사용돼 Styrene Acrylic이나 초산비닐(Vinyl Acetate) 바인더를 대체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.

〈화학저널 2010/12/6〉